

	보도자료 12월 21일(화) 조간부터 보도가능 [인터넷 12월 20일(월) 12시부터 보도가능]	 cont.insure.or.kr
---	---	--

작성부서	생명보험협회 미래전략부		
책 임 자	천승환 부장(2262-6697)	담 당 자	김우열 팀장(2262-6663) 김성민 책임(2262-6626)
배포일시	2021년 12월 20일	배포부서	홍보실(2262-6605) 총 8매

‘제16차 생명보험 성향조사 결과’

- 생명보험 가구가입률 큰 폭으로 하락... 세제혜택 축소 및 가구원 수 감소 등 영향
- 소비자는 소속 회사 상품을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전속 설계사를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나

주요내용

1. 생명보험 가구가입률 81.0%, 민영생명보험 가구가입률 78.2% 기록

- 생명보험협회(회장 정희수)는 지난 9.1~11.2까지 전국 2천 가구를 대상으로 제16차 생명보험 성향조사*를 실시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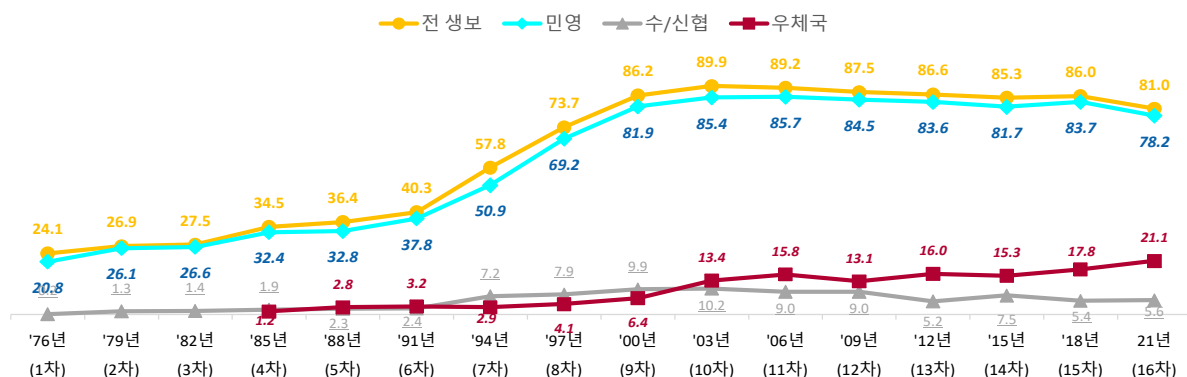
* 생명보험 성향조사는 생명보험에 대한 소비자의 성향파악을 위해 생명보험협회가 1976년부터 매3년마다 실시하는 국가승인통계(승인번호 제367001호)임

- ‘제16차 생명보험 성향조사’ 결과, 전체 생명보험* 가구가입률은 81.0%로 '18년 대비 5.0%p 하락하였으며, 민영생명보험 가구가입률 역시 유사한 추세로 '18년 대비 5.5%p 하락한 78.2%를 기록하였음

* 민영생명보험사, 수협·신협, 우체국보험 포함

생명보험 가구가입률 추이

[단위: %]



□ 이는 연금·저축성보험의 세제혜택 축소('17년)*로 인한 판매실적 저조 및 코로나19와 경기침체 장기화로 인한 생명보험 해지 증가에서 기인한 것으로 분석됨

* 보험차익 비과세 요건 강화 : 일시납 한도 2억원→1억원, 월 적립식 한도 150만원 신설
연금계좌 세액공제 한도 축소 : 총급여 1.2억원이상 고소득자의 납입한도 400만원→300만원

< 생명보험 저축성/연금 보유계약건수 및 전체 계약해지건수 추이 >

[단위: 천건, %]

구 분		① '18.6월말 ('17년)	② '19.6월말 ('18년)	③ '20.6월말 ('19년)	④ '21.6월말 ('20년)	증감 (④-①)
보유계약	저축성보험	16,061	15,189	14,270	13,494	▽ 16.0
	연금보험	10,443	10,069	9,676	9,348	▽ 10.5
계약해지		4,653	4,991	5,613	5,589	▲ 20.1

※ 출처 : 보유계약건수-금감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 계약해지건수-협회 금융통계월보 일반계정 실적, 괄호()안은 계약해지건수 기준년도

□ 또한, 저금리 지속과 투자시장 확대에 의해 예·적금, 연금보험에 대한 가입 선호도 감소 및 투자형 상품에 대한 선호도 증가 추세도 가구 가입률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임

< 장래를 위해 유지하고자 하는 금융상품 (복수응답) >

[단위: %, %p]

	예·적금	연금	변액보험	직접투자 (주식, 채권 등)	간접투자 (수익증권, 적립식 펀드 등)	단기투자 (MMF, CMA 등)	기타
2021년(16차)	66.6	25.8	23.4	18.3	11.4	3.3	3.0
2018년(15차)	69.1	35.2	15.1	11.7	8.5	2.4	0.9
증감('21년-'18년)	▽ 2.5	▽ 9.4	▲ 8.3	▲ 6.6	▲ 2.9	▲ 0.9	▲ 2.1

※ 출처 : 제16차 생명보험 성향조사

□ 한편, 평균 가구원 수 감소 및 1인 가구 비율 증가* 등 가구 구조의 변화도 가구가입률 하락의 요인으로 작용

* 평균 가구원수(명) : 2.53('15)→2.44('18)→2.34('20)

1인가구비율(%) : 27.2('15)→29.3('18)→31.7('20) (출처 :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2. 민영생보 가입가구당 평균 4.3건 가입, 월 보험료 39.1만원

- 민영생명보험 가입가구당 평균 가입건수는 4.3건, 월 평균 납입보험료는 39.1만원으로 '18년 대비 각각 0.2건, 5.6만원 감소한 것으로 조사됨

< 가구당 민영생명보험 평균 가입건수 및 월 보험료 추이 >

[단위: 건, 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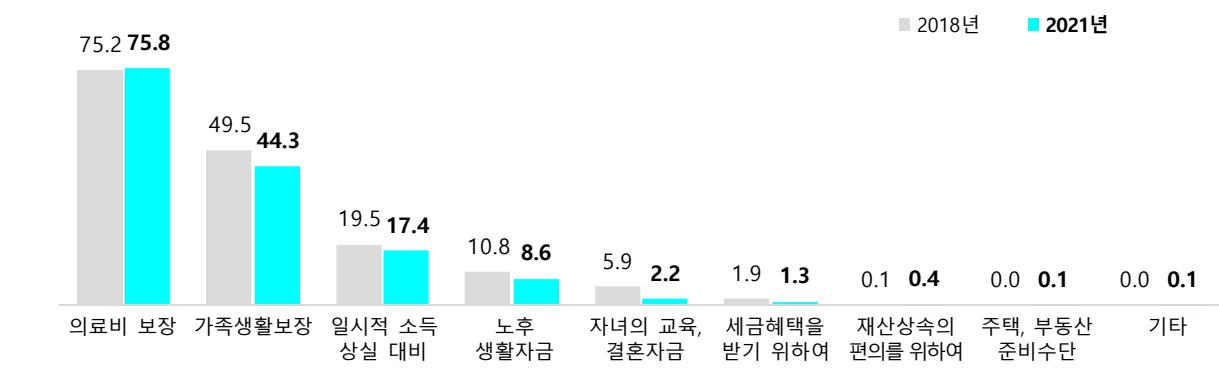
	'03년 (10차)	'06년 (11차)	'09년 (12차)	'12년 (13차)	'15년 (14차)	'18년 (15차)	'21년 (16차)	증감 ('21년-'18년)
평균 가입건수	3.8	4.4	4.4	4.3	3.7	4.5	4.3	▽ 0.2
평균 월 납입보험료	32.7	36.8	41.5	40.8	36.4	44.7	39.1	▽ 5.6

3. 최근 민영생명보험 주 가입목적은 '사고나 질병시 본인 의료비 보장' 가장 많이 가입한 상품은 '질병보장보험'

- 최근 가입한 민영생명보험 가입 목적을 조사한 결과, '사고나 질병시 본인의 의료비 보장'을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만일에 대비한 가족의 생활보장', '재해·교통사고시 일시적 소득상실에 대비' 순으로 비율이 높게 나타나 '18년 조사와 유사한 결과를 보임

최근 가입한 민영생명보험 가입 목적 (복수응답)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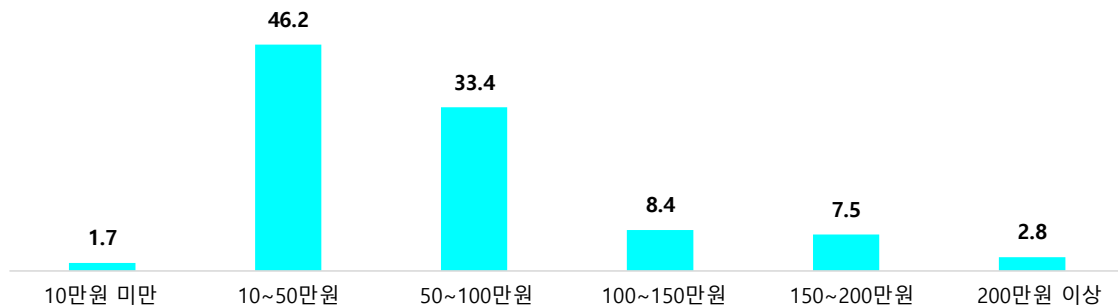
- 상품 분류로는 '질병보장보험'이 42.8%로 가장 많았으며, '실손의료보험'(22.7%), '상해·재해보험'(16.6%)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남

4. 가구주(또는 배우자)의 민영생명보험 연금보험 가입률 19.3%

- 가구주(또는 배우자)가 민영생명보험회사의 연금보험에 가입한 비율은 19.3%이며, 안정적인 노후를 위한 민영보험(공적보험 제외) 월 연금액으로는 '50~100만원'(27.2%), '100~150만원'(31.9%)의 응답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다만, 현재 가입된 민영생보 연금보험의 월 연금액은 '10~50만원'(46.2%)과 '50~100만원'(33.4%)이 대다수인 점으로 미루어, 노후대비를 위한 사적연금 시장에서 민영생보의 역할 확대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민영생명보험 연금보험 가입자 월 연금액

[단위: %]



5. 가구주 연령이 낮을수록 연금보험 가입에 긍정적

- 연금보험 세제혜택이 늘어날 경우 가입 긍정의향은 26.1%로, 가구주의 연령이 낮을수록 상대적으로 높은 가입의향을 보인 것으로 나타남

< 세제혜택 확대시 연금보험 가입 긍정 의향 >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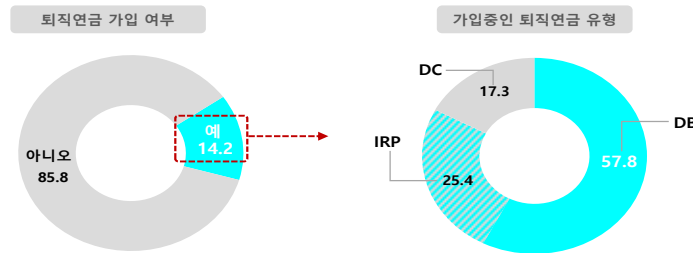
구 분	전체	20대 가구	30대 가구	40대 가구	50대 가구	60세이상 가구
2021년	26.1	44.5	45.6	34.6	26.9	9.4
2018년	31.8	57.4	51.6	43.4	22.3	7.8
Gap('21년-'18년)	▽ 5.7%p	▽ 12.9%p	▽ 6.0%p	▽ 8.8%p	▲ 4.6%p	▲ 1.6%p

6. 가구주 퇴직연금 가입률은 14.2%, 'DB형'을 가장 많이 가입 퇴직연금 수령기간으로는 '종신'을 가장 많이 선호

- 전체 가구주의 14.2%가 퇴직연금을 가입하였으며, 가입유형은 'DB형'(57.8%), 'IRP'(25.4%), 'DC형'(17.3%) 순으로 조사됨

가구주 퇴직연금 가입여부 및 유형

[단위: %]



- 'DB형'의 경우 가구주의 연령이 높을수록, 'DC형'의 경우 가구주의 연령이 낮을수록 가입률이 높아지는 경향을 보임

< 연령대별 퇴직연금 가입유형 >

[단위: 건, %]

		사례수	DB	IRP	DC
가구주 연령	20-39세	77	51.9	26.0	22.1
	40-49세	103	53.2	29.8	18.5
	50-59세	85	67.2	19.8	13.0
	60세 이상	18	66.8	23.1	10.1

- 퇴직연금 수령기간으로는 '종신'을 39.1%로 가장 많이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남
- 응답자는 미래 상황을 가정하여 답변함에 따라 종신수령 비율이 높게 나타났으며, 향후 세제혜택과 안정적 노후생활을 목적으로 연금수령 비율은 점차 높아질 것으로 전망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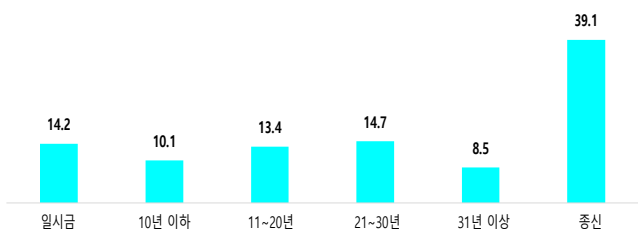
* 퇴직연금 수급개시 시점 연금수령 비율

구 분	'16년	'20년
계좌 기준	1.6%	3.3%
금액 기준	20.3%	28.4%

※ 출처 : 금융감독원

퇴직연금 희망 수령기간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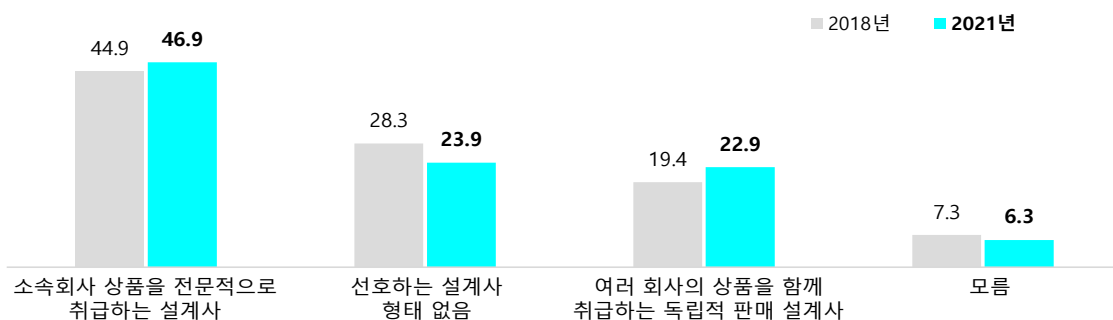


7. 보험가입시 특정 보험회사 전속 설계사를 가장 많이 선호

- 보험가입시 선호하는 설계사 유형으로는 '특정 보험회사에 소속되어 소속회사의 상품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설계사'가 46.9%로 가장 높았으며, '독립적 판매처로서 여러 회사의 상품을 함께 취급하는 설계사'는 22.9%, '선호하는 형태 없음'은 23.9%로 조사됨

보험가입시 선호하는 설계사 유형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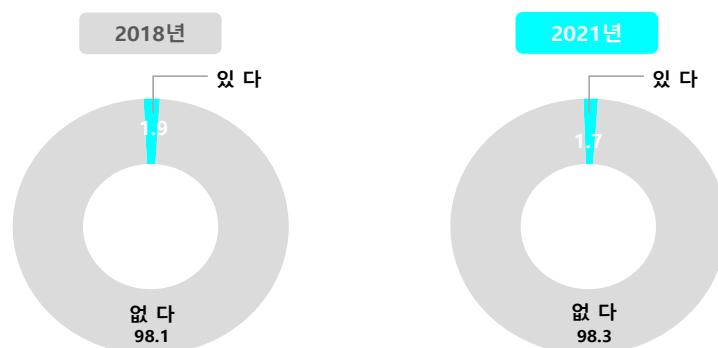


8. 공식적으로 민원을 제기한 경험의 비율은 감소

- 생명보험 상품 및 서비스와 관련하여 정부, 금융감독기관, 보험회사 등에 공식적으로 민원을 제기한 경험을 조사한 결과, '있다'는 응답이 1.7%로 매우 낮았으며, '18년 대비 소폭(0.2%p) 하락하는 등 긍정적으로 나타남

공식적인 민원 제기 경험 유무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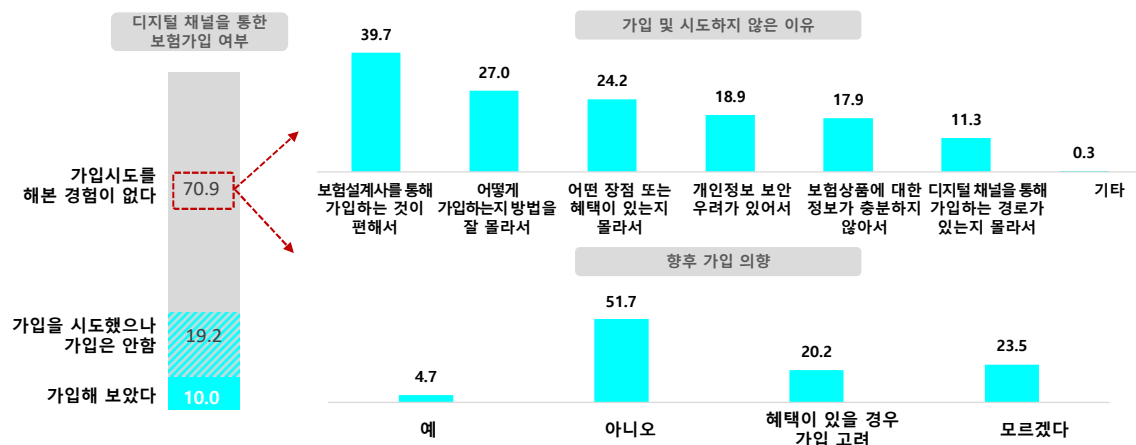


9. 10명 중 1명은 디지털 채널을 통해 보험가입 경험 향후 정보통신기술을 통해 '맞춤형 보험상품 설계' 등 희망

- 인터넷, 모바일(핸드폰) 등 디지털 채널을 통해 보험가입을 경험한 비율은 10.0%로 나타났으며, '가입시도만 해보았다'는 19.2%, '가입 시도 경험이 없다'는 70.9%로 조사됨
- 가입을 시도하지 않은 이유로는 '보험설계사 가입이 편해서'(39.7%), '방법을 잘 몰라서'(27.0%) 등이 높게 나타났으며, 향후 혜택이 있을 경우 가입을 고려하겠다는 응답은 20.2%로 조사됨

디지털 채널 보험가입 여부 / 가입을 시도하지 않은 이유 (복수응답) / 향후 가입의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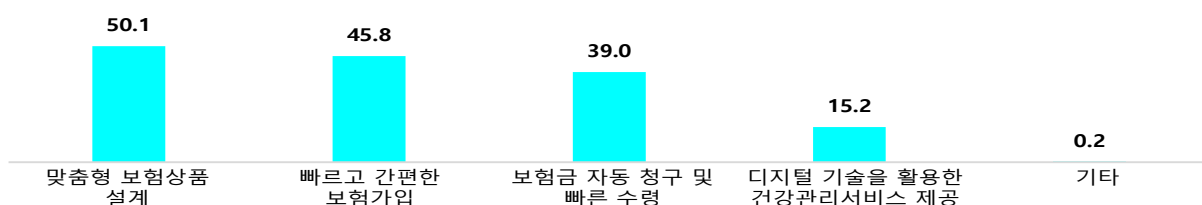
[단위: %]



-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정보통신기술(ICT)을 통해 제공받기를 희망하는 생명보험 서비스로는 '맞춤형 보험상품 설계'(50.1%)와 '빠르고 간편한 보험가입'(45.8%), '보험금 자동 청구'(39.0%)에 대한 응답이 높게 나타남

정보통신기술을 통해 제공받기를 희망하는 서비스 (복수응답)

[단위: %]



10. 소비자 특성을 고려한 생보산업 활성화 방안 마련해야 세제혜택 등 제도적 지원을 통해 조기 연금가입 문화 정착 필요

- 현재 국내 생명보험 시장은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생산 노동 인구의 지속적 감소, 코로나19로 인한 장기간 경기침체 등으로 전반적인 보험 수요가 위축되는 가운데, 연령에 따른 보험수요도 차등화 추세
 - 향후 생보산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소비자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상품개발, 판매채널의 전략 등 변화하는 환경 요인과 소비자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다각적 노력이 필요함
- 특히, 평균 수명 증가로 인해 생존 리스크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이 커지는 가운데, 노후대비 상품에 대한 소비자 니즈의 증가는 향후 생보산업의 중요한 성장동력이 될 것으로 전망
- 대표적인 노후대비 상품인 연금보험의 가입률은 아직 낮은 편이며 계속된 세제혜택 축소정책 등으로 가입유인 또한 많이 줄어든 상황이나,
 - 현재 가입된 민영보험 연금액이 노후 희망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등 향후 연금보험 잠재 수요가 존재하며,
 - 젊은 연령층을 중심으로 비교적 높은 가입 의향을 보인 점 등을 감안하여 세제혜택 확대, 수수료 개편 등 제도적 지원을 통해 조기 연금가입 문화 정착을 유도할 필요가 있음